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50원 상승한 1,469.20원에 마감

2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장대비 1.50원 상승한 1,469.2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0.10원 하락한 1,467.6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장 초반 1,471원까지 상승한 이후 네고 물량 출회 및 당국 개입 경계 등에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다. 다만, 위안화 절하 고시에 따른 위안화 약세,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에 하단이 지지되며 좁은 폭을 등락하다 1,469.20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3.5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75.82원이다.

| 전일환율변동 | 구분 | 시가 | 고가 | 저가 | 증가(15:30) | 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달러 | 1467.60 | 1471.10 | 1463.50 | 1469.20 | 1469.60 |
| 엔화 | 973.78 | 981.32 | 971.49 | 980.02 | - | |
| 유로화 | 1585.16 | 1588.54 | 1580.51 | 1585.22 | - | |

| 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 | 1M | 3M | 6M | 12M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| 보장환율(수출) | -0.41 | -5.33 | -13.19 |
| 결제환율(수입) | -0.23 | -4.54 | -11.43 | -23.98 |
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
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 확인

금일 전망

글로벌 달러 약세에...1,460원대 초중반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2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69.20) 대비 5.75원 하락한 1,461.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미 소비심리 부진 및 상호관세 경계감에 따른 달러 약세에 하락이 예상된다. 미국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92.9pt를 기록하며 전월치(100.1pt)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. 특히 소비자 기대지수는 65.2pt로 경기침체 임계점인 80.0pt를 하회하며 소비자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. 또한, 시장에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일주일 앞두고 경계감이 높아지며 달러는 약세를 시현했다. 미 달러지수는 0.09% 하락한 104.22pt를 기록했다. 미국 국채금리는 장단기 모두 하락 마감했다. 한편, 유로화는 독일의 재정확장 기대감에 IFO기업 환경 지수가 호조를 보이며 상승했다. 엔화는 이시바 총리의 강력한 물가 정책 시사 발언 및 BOJ의 금리인상 가능성 기대에 강세 전환했다. 이에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 주요 통화 강세에 연동되어 금일 환율은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뉴욕증시 반등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 등도 환율 하락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수입업체 결제 등은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 | 1459.60 ~ 1468.40 원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체크포인트 |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787.12 억원 |
| |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.75원 ↓ |
| | ■ 美 다우지수 : 42587.5, +4.18p(+0.01%) |
| |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94.05 억달러 |
| |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4588 억원 |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